

북한의 「조선력사지도첩」 내용 구성 특성 분석

이상균* · 최희**

An Analysis on the Contents Construction of *Historical Atlas of Korea* Published in North Korea

Saangkyun Yi* · Hee Choi**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하여 한민족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왜곡 또는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조선력사지도첩」을 분석함으로써 분단 이전까지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북한 측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지도첩의 내용 구성 특성을 분석하고, 역사적 사건이나 지도 선정 과정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북한 당국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명시적인 측면에서 「조선력사지도첩」의 제작 의도는 북한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애국심을 갖게 해주고, 자국의 역사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북한 정권 수립의 정당화와 김씨 일가의 우상화로 귀결된다. 둘째, 자료 구성상의 측면에서는 원시 시대의 지도는 유적분포를, 고대시대의 지도는 국가별 영역 구분을, 중세시대의 지도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전쟁 상황을, 그리고 근대시대의 지도는 미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선박의 침략을 격퇴시키는 사건을 주로 다루었으며, 지도첩의 끝부분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는 농민봉기, 반일 의병투쟁, 3.1운동 등과 같은 혁명적 투쟁의 역사를 다룬다. 셋째, 북한에서는 1926년부터 현대로 구분되는데, 김일성이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한 것이 1926년이며, 이러한 김일성의 혁명적 활동이 북한정권 수립(1945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넷째,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가 되던 시점부터 민족의 기원지, 외세 타도의 격전지, 혁명의 성지로서 부각시키는 반면,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였던 서울에 관해서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고 있으며, 대한제국도 북한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남북 간에는 역사인식의 관점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만,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역사를 바라보는 남북 간의 이질적인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조선력사지도첩」, 역사지도, 북한의 역사인식, 동북공정, 타도제국주의동맹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iscover the recognition for North Korean side of history and territory which had been sharing the same history and culture prior to division of territory, by analysing North Korea's *Historical Atlas of Korea* in the current circumstance in which Korean people's history is in danger of being partly distorted or lost due to China's Northeast Project about History. In particular,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tlas's contents composition and find out the character ideology of North Korean regime that has fundamentally influenced the historical events and the process of map selection. 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ly, it finds that in the aspect of clear statement the purpose of creation for *Historical Atlas of Korea* is allegedly to install in North Korean peoples and soldiers ethnic pride and confidence, nationalism, and to help the nation's history education, yet implicitly it is to justify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results in the reification of the Kim's family. Secondly, in terms of the content composition maps of prehistoric era focus on the historical sites, old age maps the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territory, middle ages maps on th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kyigeo@gmail.com)

**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원(Researcher, Diaspora Research Institute, eksms06@naver.com)

circumstances of war against exterior invasions, and modern maps on the events that won over the imperial vessels' invasion from America and France alike. Then the later part of the atlas, from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deals with the history of revolutionary struggles such as the peasant's revolution, anti-Japanese wars and 3.1 revolution. Thirdly, North Korea places 1926 as the beginning of "contemporary" as Kim Il-Sung started Down-with-Imperialism Union, and constitutes that such revolutionary activities of Kim Il-Sung runs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government (1945). Fourthly, it foregrounds Pyongyang as the foundation of Koreans, battleground for the exclusion of the outer forces, and the holy ground for revolution, while it doesn't mention only one sentence about Seoul which was the capital for Joseon dynasty for 500 years. The Daehan Empire does not exist in the North Korean history. Even though the viewpoint and conten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varies largely, we need to make continual efforts to narrow the different ga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unification.

Key Words : *Historical Atlas of Korea*, Historical map, North Korean perception of history, China's Northeast Project about History, Down-with-Imperialism Union

I. 서론

역사지도는 과거의 특정 지역에 대한 자연 및 인문 현상을 지도의 형태로 복원한 것이며, 특히 역사시대 국가들의 영역이나 행정구역, 그리고 전쟁 상황 등이 지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김종근·이상균, 2016). 역사지도는 특정 국가의 영토 문제와도 직결되며, 주변국과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자국의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민감한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역사지도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계기로 급속히 높아지게 되었다. 즉, 조선족 자치구를 포함하는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은 과거 한민족의 역사적 무대였음에도, 오늘날 중국 당국은 한민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08년부터 8년간 「동북아역사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한민족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년간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역사지도」 제작 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남북한은 분단 이전까지 동일한 역사를 공유해 온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역사 인식에 대한 괴리가 점점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간도나 녹둔도 문제는 현재 민감한 이슈로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관련 국과의 영토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관련 사안에 대한 북한의 인식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북한의 역사와 영역에 대한 인식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한민족의 역사가 왜곡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영역에 관한 남북한 간의 인식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역사지도 제작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기제작된 북한의 역사지도 제작 상황을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에서는 이미 2007년도에 「조선력사지도첩」¹⁾이 제작·발간되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북한에서 제작된 지도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제작된 역사지도첩에 대한 시대별, 사건별, 지도 선정의 기준 등 지도첩의 내용 구성 특성을 분석하고, 특히, 역사적 사건 및 지도 선정 과정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북한 당국의 관심사 또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 학계에서 역사지도 관련 연구는 시작단계로 볼 수 있으며, 역사지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종혁(2013)의 연구는 「동북아역사지도」가 한창 제작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는 역사지도가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역사지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사지도 제작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특징에 관해 정리한 최초의 논문이다. 두 번째 논문(김종근·이상균, 2016)은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을 담당했던 사업단에서 결과물을 제출한 직후 결과물에 대한 평가 기준안 개발과 평가

사례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전중환·이명희(2017)가 수행한 중국의 역사지도 편찬에 관한 연구는 「동북아 역사지도」 제작과정과 결과물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된 것으로 중국 역사지도첩의 편집 방향과 지침, 내용 체계와 구성, 기본도, 지도학적 표현상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최재영·이상균(2017)의 논문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역사지도첩을 분석한 연구이며, 지리학계에서 발표된 이상의 선행연구는 국내 학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역사지도 제작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역사지도의 제작적 측면보다는 초·중·고등학교 사회 또는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역사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는 활용방안 등의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강종훈, 2008; 윤정, 2010; 안운호, 2014; 윤용한, 2016; 임상선, 2016; 정요근, 2016; 김은석, 2017). 대부분의 연구가 국내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역사지도를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것에 반해, 윤세병(2011)은 중국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역사지도를 분석한 것이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본고의 핵심 연구대상인 북한의 역사지도첩에 관한 직접적인 논고는 전무한 상황이며, 다만, 김현숙(2012)의 동북공정 이후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연구에서 「조선력사지도첩」이 처음으로 분석된 바 있다. 김현숙(2012)은 연대 설정, 지도첩에 수록된 도엽의 유형 등 지도첩의 전체적인 특징을 검토한 후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첩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조선력사지도첩」의 제작배경 및 위상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즉, 북한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역사지도첩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북한 사회에서 역사지도첩은 교육용 자료로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지도첩의 내용 구성 방식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지도첩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형식적 특성에 관해 먼저 논하고, 시대별로 어떤 유형의 지도가 선정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지도 선정에 영향을 미친 북한 당국의 관심사 및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예컨대, 김씨 일가와 관련된 인물의 설정과 이상화 관련 내용, 평양 위주의 지도 선정,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외세 배격에 관한 내용, 그리고 친 중국 및 러시아에 관한 내용 등을 북한 당국의 관점으로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주된 분석 대상은 북한에서 제작된 「조선력사지도첩」이며, 지도첩 제작의 배경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노동신문 기사, 북한에서 발간된 역사 교과서 등 교육관련 자료를 참조하고, 국내에서 논의된 선행연구를 참조하고자 한다. 그 밖에 대부분의 작업은 연구자들이 「조선력사지도첩」을 직접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특징 및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의 역사인식 또는 역사연구와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의 분석을 기대하며 연구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제작된 「조선력사지도첩」의 내용 구성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첩에 수록된 지도 자료에 대한 지도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작된 「조선력사지도첩」에 수록된 지도가 어떤 원칙과 관점을 근거로 선정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며, 지도제작에 관한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I. 지도첩의 제작배경 및 위상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역사지도첩의 제작은 역사지리학의 핵심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역사와 지리의 수렴은 '지리적 지식의 기초'와 '역사적 출처를 맥락화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며(Holdsworth, 2003),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지도첩은 과거의 시간과 장소를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과거와 장소를 '사진'으로 남긴 이미지로 자신의 역사를 스토리텔링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력사지도첩」은 북한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속 역사학자들이 '60년간 유구하고 찬란한 조선민족사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체계화하였다'고 소개하지만,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과거의 역사 인식을 재정립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60년간'은 조선민족사 연구기간을 의미하며, 역사서술이 전제가 되어야 그려질 수 있는 것이 역사지도이다. 즉, '60년간'이라고 할 때 북한정권이 수립된 1948년 이후부터 시작한 것으로 2007년에 출간된 「조선

력사지도첩」은 정권수립 이후 조선민족사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역사학계가 내놓은 연구성과물이라는 것이다. 기존에 나온 역사지도는 북한의 조선역사나, 조선 지리 교과서 또는 조선통사 등의 개설서에 실려 간략한 내용이 소개되는 것이 전부였다(김현숙, 2012:327).

「조선력사지도첩」 제작은 북한의 학술연구기관중의 하나인 사회과학원²⁾이 주최하여 조선민족사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원 역사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10년이라는 지도제작기간³⁾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역사학학회'와 '국가측지국'의 역사지도 내용 심사를 통해 2007년 11월에 지도출판사에서 출판되어 북한에서 최초의 「조선력사지도첩」이 제작되었다.

「조선력사지도첩」을 제작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머리말 서두에서 그 배경이 잘 드러나 있듯이,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는데 이바지하며, 새 세대들에 대한 조선 역사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선력사지도첩」을 편찬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력사는 우리 인민이 아득히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력대반동 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워온 빛나는 투쟁의 력사이며 자기의 슬기와 재능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랑스러운 창조 력사이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 력사는 력대 봉건사기들과 제국주의어용사기들에 의하여 흑심하게 외곡 말살되고 날조 되어 조선민족의 참다운 력사로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하고도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력사학계는 지난 60년간 유구하고 찬란한 조선민족사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체계화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여 올 수 있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2007:1)

특히, 청소년의 역사교육 강화는 '우리 인민의 투쟁의 역사와 '조선민족의 참다운 역사'를 「조선력사지도첩」

을 통해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당원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려는 것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한편, 국가와 민족정신을 강조하여 군인과 당원, 청소년들까지 하나로 결속시키려는 북한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작배경의 두 번째는 역대 국가들을 시대별로 나열하면서 지도를 통한 조선역사의 정통성과 한반도의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국연대의 상한을 기원전 30세기 초로 재설정하여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리조 등 국가들의 시기별 영역과 반침략 전쟁을 위주로 나열하면서, 국가정체성은 단군조선에서 시작되어 고구려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단군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이 아닌 평양으로 수정하고 있는 북한학계의 연구⁴⁾가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이 지도첩에서도 평양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작배경의 세 번째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종료된 직후에 「조선력사지도첩」을 출간함으로써 동북공정에 참여한 중국의 역사학계에 북한의 불편한 입장을 완곡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선력사지도첩」은 60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에 '연구체계화' 과정을 거쳐 출간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동북공정이 종료된 2007년 또한 제작배경의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은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의 연구 사업으로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있는 중국변강사연구센터의 주최로 동북3성(辽宁省·吉林省·黑龙江省)의 사회과학원이 참여하였고,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종료되었다(김현숙, 2012:310). 북한은 고구려를 민족의 기상이라 여기며 조선민족 정신의 근원이라고 믿는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정면으로 논박하면서 이 시기에 「조선력사지도첩」을 출간함으로써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조선력사지도첩」 제작은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을 시도한 동북공정에 대한 반박과 함께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애국심을 심어주고, 당·정·군에는 하나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역사교과서에 수록되는 대부분의 역사지도는 「조선력사지도

첩」에 근거를 둔다는 사실은 지도첩의 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 「조선력사지도첩」의 위상과 활용가치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III. 지도첩의 체제 및 내용 구성 특징

1. 지도첩의 체제 및 시대구분

「조선력사지도첩」의 표지 외형은 짙은 브라운색 계통의 바탕에 가로 22개, 세로 30개의 작은 그림들을 배열하였고, 제목은 노란색, 상단과 하단에는 브라운색의 수직선 띠 모양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조선 평양과 '주체96(2007)'이라는 출판연도가 표시되었다(그림 1).

「조선력사지도첩」의 구성 체제는 표지, 차례, 머리말, 시대구분표, 지도기호 알아보기, 본문, 서지정보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109쪽 분량이다(표 1).

지도첩의 내용 구성은 원시시대,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사회와 현대사회 순으로 나열하고, 반침략전쟁을 위주로 하면서 원시시대 유적분포, 반봉건투쟁, 대외관계, 행정구역,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시대별로 지도를 배열하였다. 이미지 자료는 106편의 지도와 8편의 기타 유적물 관련 사진을 포함하여 총 114편으로 구성된다.

조선역사의 시대구분을 보면(표 2), 100만 년 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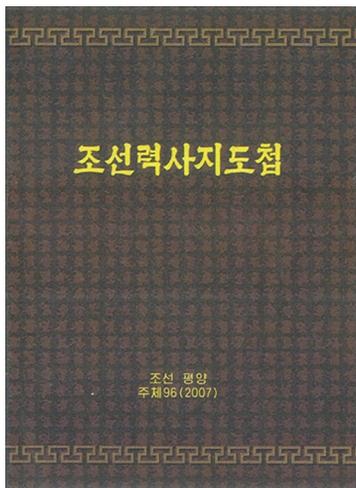


그림 1. 「조선력사지도첩」 표지

BC 3천 년대 초까지 원시시대로 대구분하면서 이는 다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세분하였고, 고대시대의 노예사회는 BC 30세기 초부터 BC 108년까지로 대구분하면서 이는 다시 전조선, 후조선, 부여, 구려, 진국, 만조선으로 세분하였다. 중세시기의 봉건사회는 BC 277년부터 5세기 중엽까지 삼국시대(고구려, 후부여, 백제, 전기신라, 가야, 동부여, 북부여), 698년부터 918년까지를 발해 및 후기신라(발해, 후기신라, 후백제, 태봉)로, 그리고 고려는 918년에서 1392년까지로 각각 세분하고, 리조(1392~1860년대 초)는 중세시대와 근대시대의 리조(1860~1926년)로 나누고 현대시기는 1926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하였다.

2. 지도첩의 내용 구성상의 특징

「조선력사지도첩」의 내용 구성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된다.

첫째, 지도배치의 관점이다. 지도첩의 목록(표 3)을 보면 지도배치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지도 구성은 원시시대는 '유적분포', 고대시대는 국가별 '영역' 구분, 그리고 중세시대의 지도는 외세의 침략전쟁을 다루었고, 근대에는 프랑스나 미국, 일본 관련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나열하였다. 또한, 대외관계지도, 행정구역지

표 1. 「조선력사지도첩」의 구성 체제

순서	구성내용
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가로22개×세로30개 이미지, 띠문양 • 출판국가, 출판연도
차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말 • 시대 구분표 • 지도기호 알아보기 • 조선력사 시대별 지도
머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첩 출판 목적과 목표 • 편집연구소 소개, 편찬 기간
시대구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기호 알아보기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별 지도 전개 • 시대별 유적물 사진 • 부연설명
서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찬, 심사, 편집 • 난곳, 인쇄소, 인쇄 및 발행일, 일련번호

표 2. 조선역사 시대 구분표

시대 (시기)	시대 및 국가 이름		기간	
			부터	까지
원시	구석기 시대	전기	100만 년 전	30만 년 전
		중기	30만 년 전	5만 년 전
		후기	5만 년 전	1만 5천 년 전
	중석기 시대		1만 5천 년 전	9천 년 전
	신석기 시대		BC 7천 년대	BC 3천 년대 초엽
	청동기 시대		BC 4천 년대 후반기	BC 3천년 기초
고대 (노예사회)	전조선(단군조선)		BC 30세기 초	BC 15세기 중엽
	후조선		BC 15세기 중엽	BC 194년
	부여		BC 15세기 중엽	BC 219년
	구려		BC 15세기 중엽	BC 277년
	진국		BC 12세기경	AD 1세기 초엽
	만조선		BC 194년	BC 108년
중세 (봉건사회)	삼국	고구려	BC 277년	668년
		후부여	BC 2세기 초	494년
		백제	BC 1세기 초중엽	660년
		전기신라	AD 1세기 초중엽	676년
		가야	AD 1세기 중엽	562년
		동부여	285년	494년
	발해 및 후기신라	발해	698년	926년
		후기신라	676년	935년
		후백제	900년	936년
		태봉	901년	918년
	고려		918년	1392년
	리조		1392년	1860년대 초엽
근대	리조		1860년대 중엽	1926년
현대	-		1926년	현재

출처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2.

도, 특정국가의 유적이거나 유물사진, 그리고 연대별 간략한 보충설명문으로 구성되었다.

대외관계지도는 국가별 대외활동의 통로인 육로와 수로를 표시하였고, 행정구역지도는 수도, 부, 주, 군, 현까지 자세히 표시되었다. 유적·유물은 해당 국가의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대외관계지도는 '삼국시기 대외관계', '발해 및 후기신라 대외관계', '11세기 고려의 대외관계', '13~14세기 고려의 대외관계' 등 4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주로 북한에서 구분하고 있는 중세시기이다. 행정구역지도는 '후기신라 행정구역', '12세기 초중엽 고려

행정구역', '14세기말엽 고려행정구역', '15세기 리조행정구역(8도)', '19세기 중엽 리조행정구역' 등의 5개는 발해, 후기신라에서 근대까지이다. 유적물 관련 사진은 '백제 초기 수도였던 풍납동토성', '김해시 대성동 2호 무덤에서 나온 가야의 단지와 그릇받침', '합천 옥전M3호 무덤에서 나온 가야의 룡, 봉황무늬고리자루긴 칼', '신라초기의 궁성인 경주시 월성', '규암리유적에서 나온 불길무늬벽돌', '백제석탑의 전형인 부여 정림사탑', '발해군사들이 공격한 동주성(중국 산둥성 봉래시)', '척화비' 등 8개가 실려 있다.

표 3. 「조선력사지도첩」에 수록된 지도목록

구석기시대 및 중세기시대 유적분포(100만 전~9천 년 전)	11세기 고려의 대외관계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 유적분포(BC 7천 년대~BC 3천 년대 초엽)	12세기 초중엽 고려 행정구역
전조선(단군조선) 령역(BC 30세기 초~BC 15세기 중엽)	고려군의 9성 설치 투쟁(1107년 12월~1109년 7월)
고대국가들의 령역 1(BC 15세기 중엽~5세기)	고려 서경성(12세기)
고대국가들의 령역 2(BC 3세기 초엽)	12세기 후반기~13세기초엽 주요 반봉건투쟁
고구려진국시기 령역(BC 227년)	고려-몽골 전쟁(1231년 8월~1232년 1월)
고대 및 중세 초 나라들의 령역 1(BC 3세기)	고려-몽골 전쟁(1231년 8월~12월)
고대 및 중세 초 나라들의 령역 2(BC 215년)	고려-몽골 전쟁(1235년 윤7월~1239년 4월)
고대 말, 중세 초기 나라들의 령역 1(BC 2세기 말엽)	고려-몽골 전쟁(1247년 7월~1248년 3월)
고조선(단조선)-한전쟁(BC 109년 가을~BC 108년 8월)	고려-몽골 전쟁(1253년 3월~1254년 1월, 3월)
한4군 위치 1(BC 108년 8월~BC 82년)	고려-몽골 전쟁(1254년 7월~1255년 2월)
한4군 위치 2(BC 82년~BC 70년대 초)	고려-몽골 전쟁(1255년 4월~1256년 10월)
고대 말, 중세 초 나라들의 령역 2(BC 1세기 초)	고려-몽골 전쟁(1257년 윤4월~12월)
백제 초기 령역(BC 1세기 말엽)	고려-몽골 전쟁(1258년 4월~1260년 4월)
고구려-신 전쟁(AD 12~14년)	삼별초 항전(1270년 6월~1273년 4월)
고구려-후한전쟁(AD 1세기 초중엽)	홍두적(홍건적)의 제1차 침입 격퇴(1359년 11월~1360년 4월)
중세 초기 나라들의 령역(AD 1세기 중엽)	홍두적(홍건적)의 제2차 침입 격퇴(1361년 10월~1362년 1월)
백제, 신라, 가야 령역(AD 1세기 중엽)	14세기 말엽 고려 행정구역
가야 령역 1(1세기 말~3세기 중엽)	14세기 후반기 왜구침입 격퇴
고구려-후부여-후한 전쟁 1(105~111년)	고려시기 역참 분포
고구려-후부여-후한 전쟁 2(118~172년)	고려군의 룡동원정(1369년 12월~1371년 10월)
고구려-위 전쟁 1(239~244년)	15세기 리조 행정구역(8도)
고구려-위 전쟁 2(245~259년)	4군6진(1393년~1449년)
가야 령역 2(3세기 말엽)	함길도 농민전쟁(1467년 5월 10일~8월 12일)
전기신라 령역 1(3세기 말엽)	리조초 역참 분포
고구려-전연 전쟁(342년 11월)	임진 조국 전쟁 1(1592년 4월~1596년)
370년대 봉건국가들의 영역	임진 조국 전쟁 초기 조선함대대전(1592년5월~9월)
고구려 광개토왕 때의 령역 확장(391~412년)	한산도해전(1592년 7월 8일)
고구려 수도 평양성 1(5세기 초엽)	임진 조국 전쟁 2(1597년 1월~1598년 11월)
전기신라 령역 2(568년)	임진 조국 전쟁 후기 조선함대해전(1597~1598년)
고구려 수도 평양성 2(6세기 말엽)	후금-청와의 전쟁(정묘, 병자호란) 시기 의병투쟁(1627년, 1636~1637년)
고구려-수 전쟁(612년)	리조 사신의 중국, 일본 방문 로정
삼국 령역(6세기 말엽~7세기 중엽)	울릉도, 독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1693~1696년)
고구려-당 전쟁(645년)	리조 평양성(18세기)
백제말기의 령역(7세기중엽)	평안도 농민전쟁(1811년 12월 18일~1812년 4월 19일)
삼국시기 대외관계(BC 3~7세기 중엽)	리조 행정구역(19세기 중엽)
고구려-라당 전쟁(667~668년 9월)	1862년 농민폭동
고구려유민들의 반침략투쟁과 발해진국(668~698년)	미국침략선 <셔먼> 호 격침 1(1866년 7월 7일~7월 16일)
고려후국 령역(8세기 초엽~10세기 초엽)	미국침략선 <셔먼> 호 격침 2(1866년 7월 16일~7월 24일)
발해의 흑수말갈원정 및 당나라와의 전쟁(726년, 732~733년)	프랑스함대의 무력침공(병인양요) 격퇴 1(1866년 8월~10월)
발해 및 후기신라 령역(8세기 중엽~9세기)	프랑스함대의 무력침공(병인양요) 격퇴 2(1866년 8월~10월)
후기신라 행정구역(8세기 중엽~9세기)	미국 침략선 <차이안> 호 침입 격퇴(1868년 4월)
9세기 말 농민전쟁	미국함대의 무력침공(신미양요) 격퇴(1871년 4월 8일~5월 16일)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대외관계(7세기 말~10세기 초엽)	갑오농민전쟁(1894년)
후삼국 령역(901년)	반일의병투쟁 1(1895년 7월~1896년)
고려의 국토통일(918~936년)	반일의병투쟁 2(1904년~1907년 7월)
발해유민들의 반침략투쟁지역 1(920년대 후반기)	반일의병투쟁 3(1907년 8월~1910년)
제1차 고려-거란 전쟁 1(993년 10월~윤10월)	일제강점기 초기 의병투쟁(1910년 8월~1914년)
제1차 고려-거란 전쟁 2(993년 10월~윤10월)	3.1인민봉기(1919년 3월 1일~4월 중순)
제2차 고려-거란 전쟁(1010년 11월~1011년 1월)	중국동북 및 로씨야 원동지방 동포들의 3.1인민봉기
제3차 고려-거란 전쟁(1018년 12월~1019년 2월)	
발해유민들의 반침략투쟁지역 2(10세기 말엽~12세기 초엽)	
고려 천리장성(1033~1044년)	

둘째, 시대 구분상의 특성이다. 시대구분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한반도 역사의 출발점과 고조선의 건국시기이다(표 2). 남한의 학계에서는 약 70만 년 전에 한반도에 인류의 거주가 시작되면서 구석기 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지만,⁶⁾ 북한은 약 100만 년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⁷⁾

또한, 시조 단군이 BC 30세기 초에 왕검성에 수도를 정하고 고대국가(노예소유국가)인 조선을 세워 원시시대에서 벗어나 문명시대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즉, 고조선을 2000년 이상 끌어올려 고대사에서 전조선(단군조선)-후조선-만조선으로 나누었고,⁸⁾ 부여는 고대 부여와 삼국시기 후부여, 동부여-북부여로 나누고 있다는 점도 남한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사의 경우, 고대시기가 아닌 중세시기로 구분하여 기원전 277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BC 30세기 중말엽 전조선이 강성기에 들어서고 부여와 구려가 전조선의 후국이 되며, BC 50세기 중엽에 전조선이 후조선으로 교체되면서 부여와 구려가 성립했다고 한다. 또한 그림 2는 '고구려 건국시기와 영역' 지도이지만, 여기서 북한이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고구려의 건국 시기로 보인다. 지

도첩에서 많은 국가가 사라지고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를 'OO초기 영역'으로 기술한 것에 비하면, 고구려는 '건국시기 영역'이라고 기술하면서 'BC 277년 동명왕이 고구려 건국'⁹⁾이라는 글을 고구려 영역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고구려의 건국시기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한반도 역사 시대구분(표 2)은 통일신라까지 고대시기로 보는 남한과는 다르게 고조선-부여-진국까지를 고대(노예사회)시기, 삼국시기부터 조선후기까지를 중세(봉건사회)시기로 구분하고, 1926년부터 현대시기로 구분하고 있어 1945년부터 현대시기로 구분하는 남한과의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현대사를 '김일성혁명력사' 교과목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1926년을 근현대사의 시점을 결정할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은 1945년 10월 10일이지만, 김일성이 만주 화전현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트·ㄷ)을 결성한 시점인 1926년 10월 17일을 노동당창건의 출발점이자 현대사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교과과목에서 볼 수 있는데, 근대사까지는 '조선력사' 교과서에서 다루고, 현대사부터는 '김일성혁명력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그러한 배경을 뒷받침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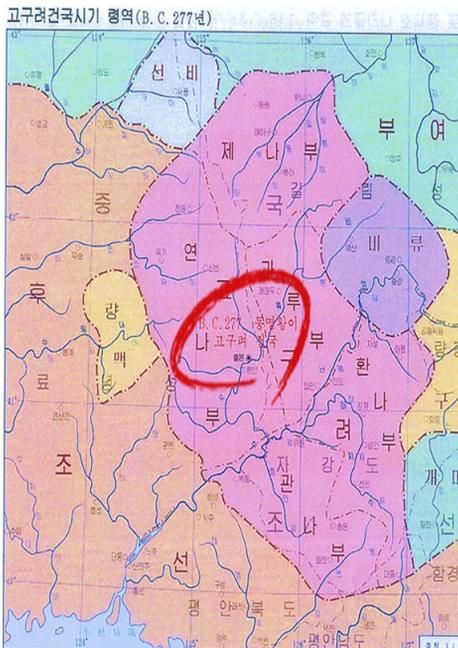


그림 2 중세의 고구려 건국시기와 영역
출처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9.



그림 3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영역
출처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36.

셋째, 시대별 영역 구분의 관점이다. 원시시대에서 구석기시기의 활동 범위를 금유산유적·묘후산유적(현재의 중국 요녕성)에서 주기유방유적·석문산유적(현재의 중국 길림성)을 포함하여 연해변강을 거슬러 아스드라한가유적·우스찌노브가유적(현재 러시아 연해주)까지 한반도의 역사 출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숙(2012)은 전성기의 고구려 영토와 말기의 영역 범위도 지나치게 확대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삼국영역지도(6세기 말엽~7세기 중엽)」에서의 고구려 영역을 보면, 요녕성, 내몽골자치구, 흑룡강성, 하북성 일대는 물론이며, 러시아의 연해주와 아무르주까지 포함하여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

넷째, 시대별 국가 명칭에 관한 관점이다. 남한의 경우, 왕검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며,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한다(조원진, 2017:40). 그러나 「북한력사지도첩」에서 고조선은 전조선(단군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으로 나누었고, 조선시대를 '리조'라고 하고, 중세 '리조'와 근대 '리조'로 구분하며, 시대별 국가 명칭에도 남북한 간의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리조' 시대인데, 중세 리조(1392~1860년대 초엽)와 근대 리조(1860년대 중엽~1926년)로 구분하여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6년까지를 '리조 시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1392~1897년까지를 조선시대, 1897~1910년까지를 대한제국으로 보는 남한과 다르게 1926년까지를 '리조' 시대로 구분하여 고종이 선포했던 대한제국(1897~1910년)의 역사를 '리조'라는 명칭 뒤에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역사 시대구분 차이는 북한의 역사지도첩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조선력사지도첩」은 고구려 건국시기를 강조하면서 고구려의 연대기를 기술하고 있는데, 표 3과 같이 「조선력사지도첩」 9쪽부터 고려후국(47쪽)까지 고구려 관련 내용은 39쪽의 분량에 이른다. 또한 고려 관련 내용은 52쪽부터 80쪽까지 29쪽 분량으로 기술되었는데, 전체 지도첩 109쪽 분량 중에 고구려와 고려 관련된 분량이 62%를 차지한다. 단군이 세운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한 고구려(BC 277년)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발해를 거쳐 통일국가 고려에 계승되어 북한의 역사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에 반박하는 통시에 단군시조-고구려-발해-고려-리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줌

으로써 조선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지도첩의 내용 구성 방식 및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면, 4장에서는 사회주의 이념 및 혁명적 관점에서 지도첩의 성격 및 구성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V. 사회주의 이념 및 혁명적 관점을 지향하는 내용 구성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도첩의 절반 이상의 분량은 고구려와 고려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진 반면, 한반도 남부에 분포했던 국가들에 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제작된 지도첩의 내용 구성의 기저에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지향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

지도첩의 머리말에도 있듯이, 북한에서는 민족사를 역대 반동 통치배들 및 외래 침략자들에 대한 투쟁의 역사로 보는 동시에 찬란한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창조역사로 보고 있다. 즉, 고구려와 고려는 민족사의 근간을 이루는 시대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고구려 시대부터 평양이 수도가 되면서 오늘날까지 유구한 역사의 중심지이면서 투쟁과 혁명의 성지가 되었던 것이다.

지도첩의 후반부에는 봉건 통치집단으로서의 리조와 외세의 침략에 관한 내용, 농민들의 봉기와 투쟁, 그리고 김일성 일가의 특정 인물과 평양 인민들을 중심으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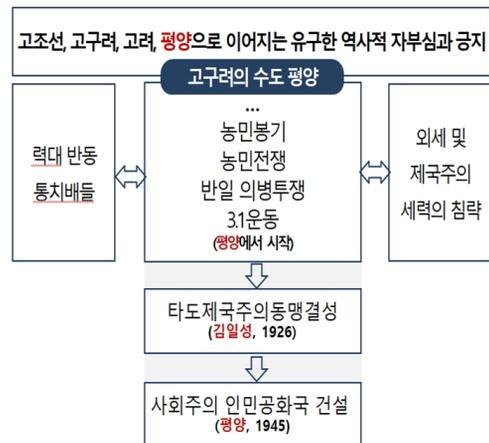


그림 4. 지도첩에 내포된 사상적 개념도

고구려수도 평양성 1 (5세기초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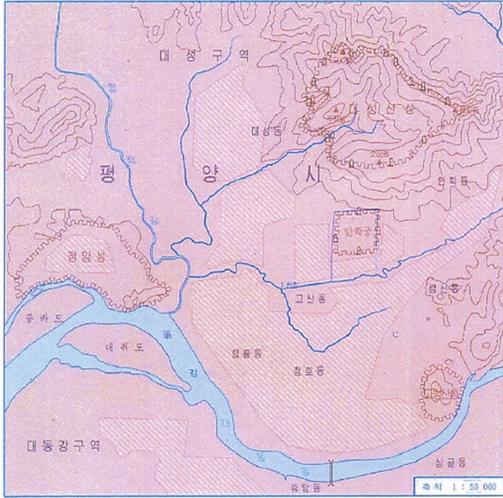


그림 5.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출처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32.

세를 격퇴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3.1운동의 시작점도 평양이며, 1926년에 김일성이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한 시기부터 북한에서는 현대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였던 서울에 관해서는 단 한 컷의 지도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수도가 서울인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대한제국의 역사도 북한의 지도첩에서는 지워져 있다.

본 장에서는 지도첩에 수록된 혁명적 성지로서의 평양과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도첩에 수록된 평양에 관한 지도를 살펴보면, 지도첩에 평양에 관한 지도는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하던 시기를 다루는 부분에서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관한 지도만 연속해서 두 컷을 수록하고 있다(그림 5).

평양에 관한 지도는 조선시대 부분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비록 조선시대의 수도는 서울이었음에도 서울에 관한 지도는 단 한 컷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시대의 평양성을 보여주는 것은 시대적 공백 없이 평양이 지속적으로 중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그림 6).

외세의 침략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94쪽부터 8쪽 분량으로 프랑스 함대의 무력침공(병인양요)과 미국침략선 ‘제너럴서먼호’(이하 〈서먼〉호) 격침(신

리조 평양성 (18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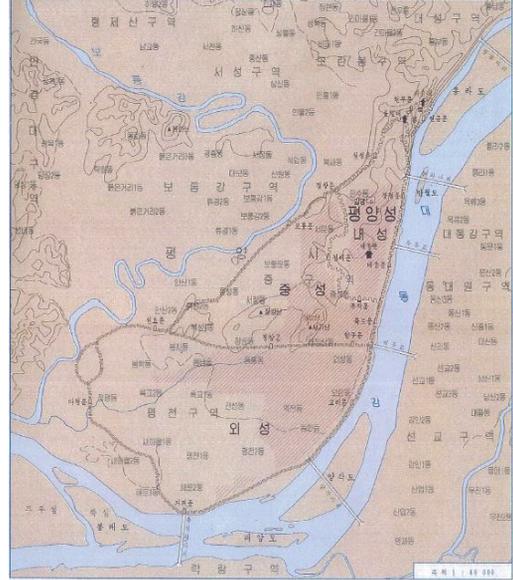


그림 6. 조선시대의 평양성 지도

출처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90.

미양요), ‘차이나호’ 침입 격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병인사옥(병인양요) 사건에 관해서는 프랑스가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결정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며, “프랑스함대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였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96)는 정도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중무장한 미국 군함 〈서먼〉호와 관련해서는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근대역사를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침략선 〈서먼〉호 격침’(1866년 7월 7일~24일)에 관한 내용을 지도와 함께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94-96), 특히, 94쪽 지도에는 〈서먼〉호의 침입 경로와 정박 장소, 평양시민들의 진공 노정, 〈서먼〉호가 불에 타 침몰된 곳 등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7).

또한, 96쪽에는 1866년 7월에 김정은의 현조 할아버지인 김응우(김일성의 증조할아버지)가 평양 시민과 군사를 이끌어 미제 침략선 〈서먼〉호 격침을 주도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1868년 4월 미국 침략선 ‘차이나호 침입 격퇴 시’에도 김정은의 현조 할아버지가 선두에서 투쟁을 이어갔다고 기술되어 있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99). 기술 내용은 김일성의 할아버지인 김응우가 ‘화공전법’을 받기하고 군사와 시민을 모아 결사대를 조직하여 대동강에서 ‘침략선’을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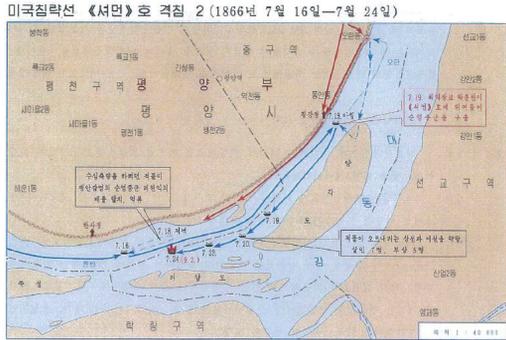


그림 7. 〈서면〉호 격침 관련 지도

출처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95.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의 실체는 존재하나, 농부였던 김일성 할아버지인 김응우의 결사대 조직은 허구로서, 날조된 역사 재검립은 김일성 일가의 이상화를 위한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영어교과서나 역사교과서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 일가의 이상화 동시에 반미투쟁에서 조선 인민의 역사적인 승리를 강조함으로써 미제국주의에 대한 조선공화국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지인 김응우 선생님께서 화공전법을 받기하시고 평양의 인민들과 군사들을 투쟁에 불러일으키심. 22일 〈서면〉호에 대한 총공세 개시. 24일(양력 9월 2일) 평양성인민들이 김응우 선생님의 지도 밑에 결사대조직. 온 평양성 인민들과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울리며 마지막공격전을 들이냄. 결사대원들이 대규모적인 화공전으로 침략선을 불태워버림. 〈서면〉호가 대동강에 수장됨. 조선인민이 반미투쟁에서 역사적인 첫 승리를 이룸.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95-96)

1926년에 결성되었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과 이어지는 3.1운동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평양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예컨대, 3.1인민봉기 관련 내용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청년학생대표가 등장하는데(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109), 평양에서 김정운의 증조할아버지인 김형직이 직접 가르친 애국적 청년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반일시위투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오영

철 등, 2013:163).

지도첩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까지 갑오농민전쟁(1894년), 반일의병투쟁1(1895년 7월~1896년), 반일의병투쟁 2(1904년~1907년 7월), 반일의병투쟁 3(1907년 8월~1910년), 일제강점초기 의병투쟁(1910년 8월~1914년), 3.1인민봉기(1919년 3월 1일~4월 중순), 그리고 중국동북 및 로씨야 원동지방 동포들의 3.1인민봉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봉건 반동 통치배들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반란과 일본 등 외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다루면서 끝을 맺고 있다.

한편, 역사지도첩은 주변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감한 영토문제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력사지도첩」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의 측면에서 '울릉도, 독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1693~1696)'이라는 제목으로 안용복의 도일 경로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토문제는 일제에 대한 투쟁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영토였으나 현재는 러시아령에 속해 있는 녹둔도나 중국령에 속해 있는 간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친선 관계를 고려하여 불편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북한의 지도첩에서는 역대의 반동 통치배들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키고, 외세 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구하여 오늘날의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였다는 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동시에, 그러한 혁명의 중심에는 김일성 일가의 영웅적 활약이 있었다는 김씨 일가에 대한 이상화의 의도도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하여 한민족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분단 이전까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북한의 역사와 영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의 「조선력사지도첩」을 분석하였다. 남한에서는 아직까지 역사지도첩이 공식적으로 발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역사지도첩을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북한의 「조선력사지도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선력사지도첩」의 발간 배경 및 의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먼저, 명시적 측면에서는 지도첩의 머리말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애국심을 갖게 해주며, 조선역사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반면, 암묵적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정권 수립의 정당화와 김씨 일가의 우상화로 귀결된다. 한편, 중국과의 혈맹 관계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평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역사지도첩 발간을 통해 완곡하게 불편함을 표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둘째, 「조선력사지도첩」의 시대구분 및 자료구성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대구분상의 특징으로는 한반도 역사의 출발점과 고조선의 건국 시기이다. 남한의 학계에서는 약 7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되었다고 보는 반면, 북한에서는 약 1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단군의 고조선사를 2000년 이상 끌어올려 남한과는 차이가 있다. 자료 구성상의 측면에서는 원시시대는 유적분포를, 고대시대의 지도는 국가별 영역구분을, 중세시대의 지도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전쟁을, 그리고 근대시기의 지도는 미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의 침략을 격파하는 사건을 주로 다루면서 지도첩의 끝부분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는 봉건반동 통치배들 및 일제에 대항하는 농민봉기, 농민전쟁, 반일 의병투쟁, 3.1운동 등과 같은 혁명적 투쟁의 역사를 다룬다. 북한에서는 3.1운동도 평양에서 시작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926년에 김일성이 결성한 타도제국주의동맹에 이어지는 맥락이며, 이때부터 북한에서는 현대로 구분한다.

셋째, 「조선력사지도첩」 내용 구성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현재 북한 정권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고구려 때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평양은 혁명의 성지로서 미화된다. 또한, 미국의 서면호가 평양에 침입했을 때에는 김일성의 증조부인 김응우가 평양시민들과 군사를 이끌고 미국의 배를 격침시켰다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의도적으로 김씨 일가의 우상화, 영웅시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조선시대는 중세 리조와 근대 리조로 나누면서 봉건 통치배들의 착취에 항거하여 농민봉기, 농민전쟁 등 민중의 봉기가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반일 의병투쟁, 3.1운동과 같은 외세의 침략에 맞

서 싸우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러한 혁명적 상황의 최전방에서 김일성이 이끌고 나가는 구도로 전개된다.

넷째, 서울은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였음에도 「조선력사지도첩」에서는 단 한 컷의 지도도 수록되지 않았다. 반면, 평양의 경우, 조선시대에 수도는 아니었지만, '이조 평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지도를 수록하는 등 평양에 관해서는 민족사적 중심지, 외세의 침략에 대한 투쟁의 중심지, 혁명의 중심지로 이어지도록 구성하고 있다. 북한 중심의 역사는 이조 말기에서 일제의 침탈을 받던 중에 김일성이 결성한 타도제국주의동맹에 힘입어 오늘날의 북한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설정됨에 따라 서울을 수도로 하는 대한제국은 단 한 줄도 기술되지 않는 등 한민족의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인민의 투쟁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역대 봉건사가들과 제국주의 어용사가들에 의해 흑심하게 왜곡 말살되고 날조된 상황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체의 사회역사관을 밝혀주고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해 준 덕분에 역사학자들이 지난 60년간 찬란한 조선민족사를 체계화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남북한 간에는 시대구분은 물론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분단 전까지 같은 역사를 공유한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에서 제작한 역사지도첩에는 우리가 참고할만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역사를 바라보는 남북간의 이질적인 관점과 내용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註

- 1) 이 연구는 '력사'와 '역사'의 출발점에서 시작되는 연구로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 도서 정식 명칭인 「조선력사지도첩」을 제외한 본문내용에는 '역사'라는 명칭으로 통일시켰다. '歷史'는 명사이지만 한자어의 두음법칙에 따라 단어 내부에서 말소리가 바뀌는 현상으로 음운변화가 일어나 사용되기 때문에 남북한의 말소리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한의 음운변동으로 바뀌는 한자어 '歷史'와 '역사'를 도서 명칭과 본문 내용에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 2) 북한의 학술연구기관은 사회과학원, 교육과학원, 의학과학원, 농업과학원 등이 있다. 「조선력사지도첩」 제작에 참여한 사회과학원은 1964년 2월 17일 내각결정 제11호에 의거해 과학원에서 분리·설치되어 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연구소, 언어학연구소, 역사학연구소, 고고학연구소, 민족고전연구소, 통일문제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각 연구 분야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 3) 2008년 8월 밴쿠버 UBC 학술회의에 참석한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조희승, 고고학연구소장 손수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역사지도첩은 약 10년에 걸쳐서 제작되었다고 한다(김현숙, 2012:327).
- 4) 1993년 단군릉의 발굴은 기존의 북한학계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고조선의 역사와 평양지역은 역사적 중심지로 강조되고 있다(오대양·조원진, 2017:102).
- 5) 연도 2007년 앞에 ‘주체96’을 북한에서는 ‘주체연호’라고 부르며, 김일성이 사망(1994년)한 이후 1997년 7월 8일 주체연호·태양절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서 괄호()안에 서기(西紀)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주체연호’는 김일성이 태어난 해(1912년)를 기준으로 +1을 하면 된다. 이것은 종교에서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연도를 그리스 기원으로 서기(西紀)를 사용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은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서기(西紀)를 사용하며 하나의 태양신으로 모시고 있다.
- 6) 남한은 초등학교 사회과부도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 80쪽에는 구석기시대는 ‘약 70만 년 전 한반도에 인류 거주 시작, 구석기문화 시작’ 되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교육부, 2014).
- 7) 북한은 고급중학교 1학년 ‘력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인류의 발생을 100만 년 전으로 확정하였다.’고 한다(오영철 등, 2013:8). 그 이유는 고인들의 화석과 그들이 남긴 유적,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고인’의 뇌수 크기는 ‘원인’보다 훨씬 컸으며 몸 구조도 발달되었다고 한다. ‘원인’은 원숭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에서 ‘원인’이며, ‘고인’은 구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한다고 교과서에서 기술되었다. ‘력사’ 교과서는 「북한력사지도첩」을 참고하여 편집되었다.
- 8) 시조 단군이 세웠다고 하여 ‘단군조선’으로 불리는 고조선은 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시기로 구분하는

데, 이것을 3조선 또는 3왕조라고 부른다(오영철 등, 2013:17).

- 9) 고구려 기원에 관한 논의는 중국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왔다. 고구려 기원에 관한 중국에서의 연구들 보면, 고구려 국가는 동이민족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李德山, 2006), 고구려가 발전하기 전에 있던 지역문화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고구려 문화는 부여문화, 이(夷)족문화, 한(漢)족문화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고구려가 발달하면서 한(漢)족이 유입되어 고구려민족이 결국에는 한(漢)족이 주축이 되어 하나로 형성된 민족(孫進己, 2002)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 10) 미국 ‘제너럴서면호’의 격침에 관한 부분에서 “조선 인민이 반미 투쟁에서 역사적인 첫 승리를 이룩”(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96)이라고 기술된 부분은 오늘날의 북미 관계에서 보더라도 의 미심장한 표현이다.

참고문헌

- 강종훈, 2008,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역사 지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역사교육, 106, 211-244.
- 김은석, 2017,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역사지도에 나타난 타자, 제주” 역사교육연구, 29, 211-236.
- 김종근·이상균, 2016, “역사지도 평가 기준안 개발과 평가사례: 동북아역사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6(2), 59-69.
- 김종혁, 2013, “역사지도 제작을 위한 역사지리환경의 복원” 한국지도학회지, 13(2), 77-94.
- 김현숙, 2012, ““동북공정” 이후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국학연구, 21, 309-355.
- 안운호, 2014, “한국사 교과서 상의 역사지도(歷史地圖) 활용 분석과 제언” 역사와 역사교육, 29, 39-62.
- 오대양·조원진, 2017, “2000년대 북한학계의 단군·고조선 연구 현황 검토” 선사와고대, 54, 63-107.
- 오영철·정성철·박영철·차영남·염창진, 2013, 「조선력사(고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윤세병, 2011, “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지도” 역사와 담론, 60, 107-148.
- 윤용한, 2016, “초등학교 사회과(역사영역) 교과서의 역사지

도 활용 분석과 제언” 역사와 역사교육, 32, 131-146.

윤정, 2010, “국정 『국사』 교과서(2~6차) 수록 역사 지도의 추이와 경향성” 역사와 실학, 41, 73-119.

임상선, 2016, “고등학교 ‘역사부도’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고종세 시기 역사지도 검토” 역사와 교육, 23, 41-80.

전중환, 2002, “역사지리학 연구의 고전적 전통과 새로운 노정: 문화적 전환에서 사회적 전환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215-252.

전중환·이명희, 2017, “중국의 역사지도 편찬에 관한 기초연구” 동북아역사논총, 56, 92-135.

정요근, 2016, “2011개정 교육과정 기초 검인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역사부도 수록 고려시대 역사지도의 분석” 한국사연구, 172, 35-73.

조원진, 2017, “고조선의 발전과 대외관계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재영·이상균, 2017, “일본의 역사지도에 반영된 한국의 영토와 일본의 한국 인식: 「일본역사지도(1927)」, 「신편 일본역사지도(1931)」를 사례로” 한국지도학회지, 17(1), 1-13.

孙进己, 2002, “高句丽的起源及前高句丽文化的研究,” 社会科学战线, 2, 162-175.

李德山, 2006, “再论高句丽民族的起源,” 东北史地, 3, 9-1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 「조선력사지도첩」, 평양: 지도출판사.

Holdsworth, D.W., 2003, Historical geography: New ways of imaging and seeing the pas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4), 486-493.

교신 : 최희, 219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27 2층, 디아스포라연구소(이메일: eksrns06@naver.com)

Correspondence : Hee Choi, 21912, 2F., 27 Hambak-ro, Yeonsu-gu, Incheon, Korea, Diaspora Research Institute (Email: eksrns06@naver.com)

투 고 일: 2019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11일

투고확정일: 2019년 12월 13일